행복바라미, 범국민 동참 운동으로 전개

날마다좋은날 7월 15~16일 행복바라미워크샵 개최

매년 10% 수혜 확대 성과
모금 · 수혜 일치해 호응↑
의견수렴, 새 원력 다져



7월 15일 2017행복바라미워크샵에 참석한 불자들이 범국민동참운동 전개를 서원하고 있다.

행복바라미 캠페인 5주년을 맞아 범국민 동참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불자들이 다시 원력을 모으기로 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은 7월 15~16일, 천안에 위치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2017 행복바라미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은 4월 5일 광화문에서 개최한 전국불자 금강경독송정진과 나눔문화 캠페인 활동에 동참한 포교사단 및 교구신도회, 신도단체 임원 700여 명이 참여했다.

2013년 시작한 행복바라미 캠페인은 최근 모금액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6년 모금액 2억원을 돌파한데 이어 2017년 7월에도 모금액이 2억원에 달한다. 다양한 사찰에서의 모금과 함께 거리 모금, 까페 바라밀을 활용한 기부 확산 등에 힘입은 바가 크다.

늘어나고 있는 모금액 만큼 수혜 대상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행복바라미는 2016년까지 총 5억 6278만여원을 소외계층 1276명에게 전달했다.

계층별로 보면 2013년 기초수급권자 134명과 차상위계층 28명, 저소득층 47명 등 총 209명을 지원한데 이어 모금액이 소폭 줄어든 2014년에는 오히려 기초수급권자 163명과 차상위계층 28명, 저소득층 68명 등 259명으로 지원폭을 넓혔다.

2015년에는 기초수급권자 229명과 차상위계층 57명, 저소득층 100명 등 총 386명을 지원했으며, 2016년에는 기초수급권자 264명과 차상위계층 43명, 저소득층 115명 등 총 422명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 중에는 극빈 저소득층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16년 지원 내역을 보면 극빈저소득 지원 296명, 무의탁 노인 지원 43명, 저소득다문화 지원 28명, 빈곤 노인가장 32명, 무의탁 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 14명 등으로 배분됐다. 대부분이 생활비였으며, 의료비와 교육비 지원도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행복바라미 캠페인의 성공에는 캠페인 참여자들이 직접 수혜대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날마다좋은날은 연말 모금 이후 지역 모금을 주도한 전국 각 사찰 신도회 및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수혜대상을 선정한다. 날마다좋은날 측은 각 지역의 모금을 지역 소외계층에 사용하기 때문에 호응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5일 진행된 워크샵에서도 이러한 선정과 모금에 대한 의견수렴 자리가 마련됐다. 이기흥 날마다좋은날 이사장(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특강 이후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행복바라미에 동참한 많은 불자들은 행복바라미 캠페인이 불교계를 대표하는 사회 공동모금으로 자리잡기를 다시금 서원했다. 또 김포강화 포교사단과 제6교구신도회의 사례발표도 이어졌다.

이기흥 이사장은 "불교의 가치와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세상을 실현하는 것이 행복바라미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불교중흥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범국민적 사회공헌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국내 최초 사하촌, 불자마을 변모

낙산 용호리 10일 낙산사서 불자마을 창립법회

양양 낙산사 사하촌에 국내 최초로 불자마을이 탄생했다. 사하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찰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낙산사 인근 용호리 주민들은 7월 10일 낙산사에서 '낙산 불자마을'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용호리 주민들은 불자마을로 매월 1회 정기법회를 열고, 낙산사가 실시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마을 주민들의 포교에도 나서기로 했다.

용호리가 불자마을이 된 것은 그동안 낙산사가 물심양면으로 마을 주민들을 도운 결과이다. 낙산사는 특히 2005년 산불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이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

이동근 용호리 이장은 "기업형 주민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해 지역이 화합하고, 먼 곳에서 오는 이들이 편안히 쉬었다 갈 수 있는 마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창립법회에서는 용호리와 함께 전진리, 주청리, 낙산사 상가지역 주민 등도 참여했다. 도후 스님은 "불자마을 창립을 계기로 지역민과 화합, 소통하고 불교 발전의 초석이 되자"고 설했다.

한편, 낙산사는 불자마을 주민을 위해 정기 법회를 봉행하는 한편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여름수련회 개최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산청 겁외사서

생활 속 참선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이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성철스님 생가터인 산청 겁외사에서 참선 수련회를 개최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40명으로 30세 이하는 무료다. 수련회에서는 해인사 백련암을 찾아 원택 스님을 지도법사로 화두실참이 진행된다. 또 금강굴에서 불필 스님에게 공부를 점검받는 시간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불교인재원은 성철선사상연구원(이사장 원택)과 9월 생활참선 입문코스와 심화코스를 진행한다.

생활참선 입문코스는 9월 1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전법회관 지하1층 교육관에서 진행된다. 불교교리와 중도, 연기, 공의 개념, 간화선 수행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다. 11월에는 산청 겁외사와 해인사 금강굴에서의 점검 시간도 갖게된다.

심화코스는 입문코스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며 9월 6일부터 매주 수요일 열린다. 〈신심명〉과 성철스님 〈백일법문〉 강의 및 문경 봉암사 순례와 혜민스님 특강도 진행된다. 불교인재원 심화코스 이수자에게는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의 명상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엄상호 이사장은 "일상 생활에서 참선을 통해 마음공부를 하면 많은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여름방학 맞은 청소년 명상 · 체험 여기로

지장사 명상 템플스테이 8월 3일 · 10일 2차 걸쳐 개최

김천 백마산 지장사(주지 정혜)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8월 3일부터 5일,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2차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서는 참선명상, 걷기명상, 오감명상, 두뇌개발 집중명상, 숲속명상 등 명상집중 훈련을 비롯해 건강식 반찬 만들기, 오곡밥 짓기, 옛날 팥빙수 만들기, 효소만들기 등 다양한 음식 조리 체험도 진행된다.

또 자연탐방과 연등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참가 정원은 1차 25명, 2차 20명으로 참가비는 7만원이다. 필기도구 및 운동화 등 준비물은 개인지참이다.

지장사 정혜 스님은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감성지수와 창의력 개발을 더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며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054)432-1189

노덕현 기자

"불교의 미래, 희망 키운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 9월 2일 제9회 나란다 축제 개최

결선제도 도입해 열기 유지
학생 적응 위한 OX퀴즈 실시
'우리말 독송' 인터넷 생중계도



대표적인 불교계 어린이청소년 축제인 나란다 축제가 참가자 전원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한 단계 발전한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은 7월 19일 간담회를 갖고 '제9회 나란다 축제' 요강을 발표했다.

올해 나란다축제는 9월 2일, 3일, 20일 3일간 서울 동국대 일원을 비롯한 전국 군법당, 사관학교 등지에서 개최되며, 부문별 참가접수는 7월 17일부터 8월 27일까지다.

먼저 '도전! 범종을 울려라' 초등부 결선 진행방식의 변화가 눈에 띈다. 지역별 예선을 통과한 초등생들이 모여 치러지는 결선은 결선점수 합산제도를 도입, 우승기회의 폭을 넓혔다. 결선점수 합산제도는 수상권내 학생들(16~20명)을 1차 선발하고, 선발된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를 다 풀어 최종 우승을 가리는 방식이다.

또한, OX퀴즈 도입 등을 통해 참가 학생들이 오래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교제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초등부 기출문제'로 일원화해 공부에 대한 부담도 대폭 줄였다. 기출문제집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운로드하면 된다.

지난해 첫 도입된 '우리말 독송대회'는 형식과 독송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팀별 참가(5~10인)를 원칙으로 하며, 오후2시부터 4시까지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진행된다. 대상 수상팀에게는 300만원의 장학금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상이 수여된다.

'붓다야! 놀자'는 오전 10시부터 동국대 경내에 설치된 7곳 장소에서 진행되며, '전통문화체험마당'도 오전10시부터 만해광장에서 펼쳐진다. 나란다 K-댄스대회는 오후 7시 동대문 굿모닝시티 특설무대에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진행된다.

사관생도 부문은 9월 20일(수) 오후7시부터 8시까지 해당 학교법당에서 진행되며, 육 · 해 · 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생도들이 참가한다. 군장병 부문은 9월3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개설된 시험장에서 진행된다.

'도전! 범종을 울려라' 초등부와 일반부, 우리말 독송대회, 나란다 K-경연대회는 인터넷 생중계될 예정이다. PC와 모바일을 통해 은정불교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총 장학금 8천여만원이 지급되는 나란다축제 수상자에게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상 등이 함께 시상된다.

노덕현 기자

"어르신 봉사하며, 청소년 인성교육도"

광진노인종합福, 청소년자원봉사학교 개최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7월 26일 제19기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진행한다. 1 · 3세대 통합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이번 자원봉사학교는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원봉사자로써의 기본소양 및 자세를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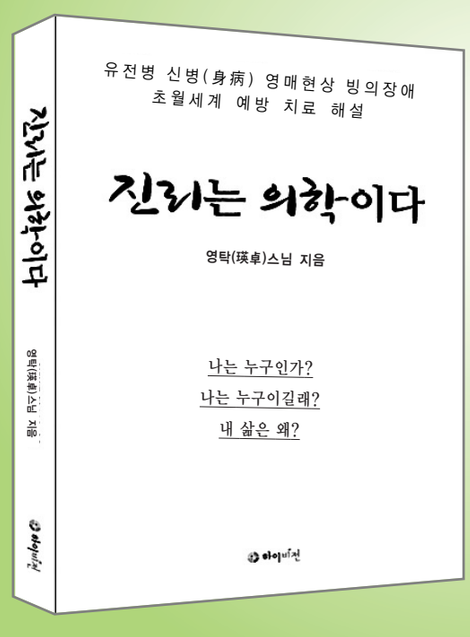
청소년 자원봉사학교에는 총 15명의 학생이 참석해 자원봉사 소양교육, 영역별 봉사활동, 孝케이크 만들기, 노인생애 체험, 어르신 생신편지 쓰기 등을 체험한다.

이정범 광진노인종합복지관 팀장은 "최근 자원봉사의 개념이 학점이나 졸업 및 진학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원봉사학교를 통해 자원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466-6242

노덕현 기자

진리는 의학이다!

천불사 영탁스님이 세계 최초로 중생제도 대원력 서원을 성취한
불설초월세계진여자성본원력방편보살도!
조상영가 왕생극락 시킬 수 있는 방편 대공개!



불설초월세계진여자성본원력방편보살도는
삼계사생육도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의
잠재의식 다겁다생의 업보를 해체 분리
파괴 소멸시켜 해탈하는 초월세계
우주진리법 입니다.

신병(身病), 영매현상, 빙의장애는
완치될 수 있고, 유전병도
예방 치료 됩니다.

전국 대형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십시오.

값 15,000원 | 신국판 | 261쪽 | 하이비전

■ 문의 : 천불사 053)624-2272, 053)624-2275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대진산업 010-2628-9944